

건축사의 ‘꿈’을 담는 전시회로 구성

- 30조, 건축 자재 시장 리더 역할 필요

An Exhibition Filled with Dream of Becoming an Architect

김형진 / 정회원, 가야아도시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장
by Kim, Hyeong-jin, KIRA

‘ZERO혁명, 친환경건축을 디자인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9년 한국건축산업대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된다. 2006년부터 3회에 걸친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전시회의 초석을 다진 행사였다면, 이번 4회 전시회부터는 건축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꿈’의 전시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금 까지 우리가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외부를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외부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9한국건축산업대전은 더욱 의미있고, 중요하다.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이 길을 걸어 왔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걸어왔던 모든 것을 전시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High Technology에 대한 이해,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 친환경 녹색 건축의 구현, 건설 산업의 초석, 디자인 발전의 리더, 더 나아가서 도시 구성의 기본 요소로서의 건축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고하는 건축에서 행동하는 건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도시개발의 방관자로서 자리매김 해왔

다.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의 건축을 다듬어 나가야 할 때이다.

올해 건축 예산 공사액은 110조원으로서, 자재 시장이 30%를 차지한다고 보면, 건축 자재시장은 30조원에 달한다. 건축사가 10%만 Handling 한다고 해도 3조 시장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시장은 기존의 설계 시장과 맞먹는 시장 규모다. 이 시장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건축자재 시장은 건축사가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중심을 잊고 건축 자재 시장은 표류하고 있다. 자재 업체들이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리더의 탄생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 자재들이 겸증 없이 사용되고 있고 곳곳에서 불량 자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과거에 당연시 여겼던 자재 선택권이 시공업체로 넘어가 있다. 감리업체의 자재 겸증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자재 겸증권 및 자재 선택권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야 한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협회에서 예산 지원이 없는 비예산 사업이다. 총 전시회 예산을 자재업체들을 유치하거나, 협찬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자재업체들의 지불 비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재업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전시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에서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효과를 봤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전시회가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건축사들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자재업체들이 효과를 봤다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방법은 우리 전시회에 전시된 좋은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실질적인 혜택이 입소문이 나서 많은 자재들이 우리의 손을 거쳐갈 때, 건축사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게 되고 자재 시장에서의 우리의 역량은 확대될 것이다. 물론 전시회를 통한 자재 시장에서의 역량 확대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매우 좋은 마당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High Technology에 대한 효과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현장을 중시하지 않는 건축 디자인 현실로 인해 불량품을 양산하고 있다. 불량품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 마련이다. 양질의 고급품을 제품화시키는 데에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High Technology에 대한 정보교류 및 기술 시장을 건축사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High Technology의 구현의 장(場)을 한국건축산업대전이 보여줄 것이다.

문화란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구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문화다. 역사를 가진 문화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삶의 정취를 느끼게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축문화를 알리고,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외부로 일깨워야 한다. ‘문화 전시회’가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문화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까이에 문화는 존재한다. 건축을 공예 등 미술과 접목시킨 바우하우스에서 유럽 건축을 알 수 있듯이 건축문화는 우리 삶의 주변에 있다.

앞으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친환경, 녹색 건축’에 있다. 지금까지 혹시 소홀히 해 왔다면, 이번 MB정부의 슬로건에 기대어 더욱 발전 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환경 재앙으로 치닫는 도시 환경에서 우리는 건축사의 Vision을 보여 주어야 한다. APT 입주민들이 겪는 신규 입주 건물의 환경 호르몬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환경오염 Zero, 아토피 Zero,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여야 한다. 또한 열에너지 사용 Zero를 통한 화석연료 Zero 지대, 탄소 Zero 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특별관을 만들어 전시할 예정이다.

도시가 지금까지는 신속한 개발로 인한 무채색의 도시라면, 이제는 Design을 가미한 인간미 넘치는 도시여야 한다. ‘Design 강국’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Design KOREA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전문가 집단의 전문전시회로 구성되고 있다. 최근의 여러 건축전시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라면 건축산업대전은 건축 전문성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건축 전문업체가 효과적으로 홍보 할 마당이 한정 되었고 홍보효과를 의문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시회의 포지셔닝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추구할 의미가 있는 위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AIA 총회가 Conference, 자재 전시, 기술전시, 건축사의 Festival의 성격을 갖는 흥겨운 총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09. 10. 07(수) ▶ 11(일)
COEX 3F Hall C _구 대서양홀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제로혁명 ; 친환경 건축을 디자인한다

전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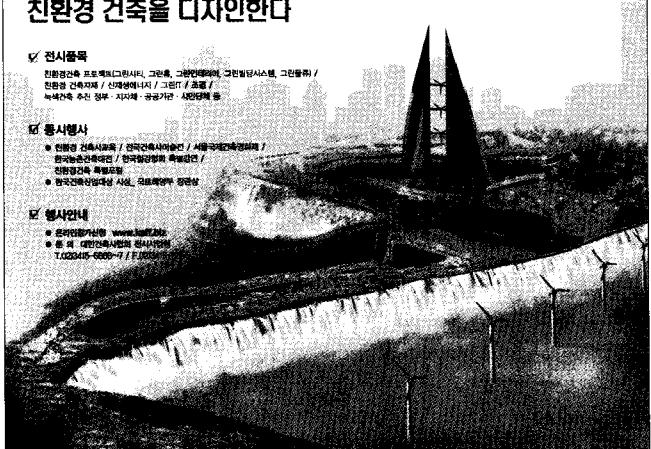
- 전통과 현대의 조화(한옥, 고을, 그린마을, 그린빌딩시스템, 그린플랜 / 전통과 건축재료 / 산림생태마을 / 그린 / 프로젝트 / 녹색건축 우수인 정부 지자체 - 광광기념 사업장 등)

동시행사

- 전통과 건축사박람회 / 한국건축사박람회 / 서울국제건축전시회 / 한국건축전시회 / 전시회장정부 / 부록전시 / 전시장정부 축제전시회
- 한국국제설계전시회 / 사업... 국제전시부 강원전

행사안내

- 전시관람가격: www.kaff.biz
- 전시관람가격: www.kaff.biz
- 전시관람가격: www.kaff.biz



로 건축사들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건축산업대전도 이에 못지않는 행사로 재탄생 될 것이다.

이 이외에도 다른 많은 전시가 기획되고 있다. 친환경교육행사, 건축영화제, 공공 프로젝트관 등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는 행사도 기획 중에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사업위원회가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다. 단장님 포함 위원 10여명과 직원2명이 10억원 정도의 비예산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일반 중소규모 회사의 성격이다. 그만큼 협업에 바쁜 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으로 전시회를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건축사 모든 회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전시회를 성공시키고 우리가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될 때이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만이 아닌 모든 건축인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한국건축산업대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건축사 여러분! 참가업체 등을 적극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